

북핵 검증 의정서 쟁점 조율 난항

베이징 6자회담, 北 기준 입장 고수 속개 여부 등 향후 일정도 못 정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일 오전부터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다양한 양자접촉과 6자 수석대표 회의 등을 갖고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후 3시20분(현지시간)부터 진행된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하루 이틀 더 진행하는 방안, 휴회를 하고 내년 초에 다시 속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 6시30분 회의를 끝냈다고 회담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6시30분께 다오위타이를 떠난 상태이며 나머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단은 현재 의장국 중국과 함께 회담장에 남아있다.

중국이 전담 제시한 의정서 초안은

검증의 주제와 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담겨져있으며 지난 7월 6자회담 합의문과 10월 평양 북미합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전날 이틀째 회의에서 쟁점인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 중국이 제안한 '시료채취를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검증의 주제와 대상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쟁점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회담 소식통은 "검증 주제에 있어 현안은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어떻게 담느냐이고, 대상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 등

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경제·에너지 제공 방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채택될 합의문은 비핵화 실무그룹의장국인 중국이 마련한 검증의정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에너지가능화 마무리 계획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인 러시아가 만든 문서를 중국이 총괄 합의문서로 정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은 별도의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이어 영국도 지문 조회 등 거쳐 탈북자 망명 허용

미국에 이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도 한국정부의 지문 조회 등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아니라라는 점이 확인된 뒤에야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망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탈출, 영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영국행성사'가 지금보다 상당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9일 탈북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의 영국 망명을 막기 위해 지문을 조회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필 윌러스 영국 이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지문을 채취, 체크할 것"이라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가장해 영국에 입국하려 해왔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국적을 회복했던 탈북자들이 서방국가로 재망명하기 위해 다시 제3국으로 나가 탈북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홍콩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1)가 발견돼 닭 8만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내리진 홍콩 신계지역 위안링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닭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일랜드産 쇠고기서도 다이옥신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이어 축우에서도 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9일(현지시간) 자국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파문과 관련, 소 목장 3곳의 축우에서도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목장에서도 돼지 농장에 공급된 것과 같은 기계유 오염 사고가 사용됐던 '밀스트림 파워 리

싸이클링'이라는 사료 회사가 유통기 한이 지난 빵과 밀가루 반죽 등을 이용해 사료를 만들면서 원료를 건조시키기 위해 기름 버너를 사용했는데, 기계유 연소 과정에서 생긴 연기가 사료의 원료에 혼합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계유는 식품 근처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것으로 회사는 아일랜드 환경영향으로부터 이 기계유 사용에 대한 허기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현재 사료생산을 전면 중단한 뒤 식품안전당국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밀스트림 측은 아일랜드 내 9개 돼지 농장과 45개 소 목장, 북아일랜드 지역의 영국 돼지 농장 9곳, 소 목장 10곳에 사료를 공급해 왔다. 정부는 이날 검사 결과 3곳의 목장에서 다이옥신이 확인됐고 8곳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위해 기도해 달라"

美 전투기 추락 가족 잃은 운동선수 눈물의 회견



미군 전투공격기 추락사고로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운동선수(37)씨가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를 용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후 사고 이틀째인 9일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는 너무 떨려서 기자들을 만나기 힘들었다"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의 시신을 찾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큰 딸 하은 양의 시신은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수습됐다. 윤씨는 슬픔을 이겨내느라 중간중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을 이었다.

그는 "조종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그는 미국의 보물이며 그를 탓하지 않고 그에 대해 격한 감정도 없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추락 전투기의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다.

해야 할지 알려달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윤씨와 동행한 샌디에이고연합감리교회 담임 신영각 목사는 "10일 저녁 교회에서 윤씨 가족을 위한 추모예배를 갖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후 4시 25분께 현장에도 착한 윤씨는 흰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동행한 형제들 및 교회 관계자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마지막으 낀 잔격을 돌려보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훈련비행을 마치고 미러마르 해변대 비행장으로 귀환하던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F/A-18 호넷이 추락하며 샌디에이고 외곽 윤씨의 집을 덮치는 바람에 윤씨는 부인 이영미(36) 씨와 각각 2살, 2개월된 두 딸, 장모 김석임(60) 씨 등 가족을 함께 잃어 왔다.

미군 당국은 해당 전투기가 엔진 고장 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OECD "선진국 침체 예상보다 심각"

세계은행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0.9% 전망

미국과 일본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도 9일 선진국발 침체 타격이 신흥국 및 개도국에 확산됨에 따라 내년에도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어두운 전망은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가 선호하는 미국채에 즉각 반영돼 3개월 만기물의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격과 반대로 가는 수익률은 이미 제로에 근접했다.

OECD는 이날 파리에서 11개국 전담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에도 마이너스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10년에는 1.6% 성장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 당국이 침체 타격을 위해 거시경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앞서 더 깊은 골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 보고서는 일본과 영국도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나왔다.

일본 내각부는 9일 지난 3.4분기(7-9월) GDP 실질 성장이 전분기 대비 0.5% 줄었다면서 이것이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1.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서 분기 위축을 0.1%로 예상하면서 연율 기준 하락률도 0.4% 수준으로 관측했다. 영국도 상황이 심각해져 산업 생산이 지난 10월 한달 전에 비해 1.4% 감소함으로써 8개월째 하락했다. 10월 하락률은 연율 기준 마이너스 4.9%인 것으로 영국 통계청이 집계했다.

다. 10월 제조업 위축은 지난 2005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영국 산업이 지난 1980년 이후 최장 기간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2009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0.9%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의 경우 성장률을 2.5%로 예상하면서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의 저스틴 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라고 밝혔다.

신흥국과 개도국의 타격도 심각해 지난해 평균 7.9% 성장한 것이 내년에는 4.5%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도국 투자가 크게 위축돼 지난해 13% 증가한 것이 내년에는 증가율이 3.4%에 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경·공매전문기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신철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궁동	46/233	8억9500만	5억9500만
오치동	50/52	1억9500만	1억1300만
금호동	104/234	7억8100만	4억9800만
문영동	146/400	12억7000만	7억9000만
월봉동	137/223	8억1000만	3억9500만
원산동	362/893	4억1400만	2억9500만
부서동	187/93	10억8000만	5억8000만
수동동	40/94	4억9000만	2억4000만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모양동	41,4/68,8	1억4900만	8400만
소촌동	57/53	9500만	6620만
백운동	114/29	2억8700만	2억
신정동	67,5/51	2억3150만	1억8200만
화정동	134/83	6억5600만	2억8400만
진월동	38,6/46	8180만	5730만
농성동	38/26	1억1970만	4300만
계림동	95/86	1억8740만	8370만
지산동	83/42	2억4740만	1억7320만
영양동	150/53	5270만	2400만
회현동	153/50	1억8300만	9120만
영상동	200/44	8840만	6200만
당림동	65,6/32,5	6100만	4270만

▶아파트			
소재지	명칭	층	면적
내일동	하대	2층	32
생촌동	모아제일	1층	32
나주	솔밭주공	6층	20
방동동	모아	8층	29
차량동	리안나주	3층	25
문흥동	제일파크	7층	20
화정동	이원힐스	18층	87
문양동	주공다지	4층	32
금호동	일신	3층	32
차량동	중흥	6층	32

▶토지			
소재지	종도	면적	감정가
관산동	답	907	8600만
나원동	전	1210	4000만
영광동	전	619	1520만
영광동	답	2283	8870만
이양동	답	45,4	2700만
영곡동	답	686	1440만
청학동	답	907	5100만
반동동	전	1443	1억9860만
농성동	답	96,8	3억8400만
청성동	답	713	3355만

▶공원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당림동	1444/690	10억3500만	7억2500만
문수동	634/185	11억5000만	6억4500만
회현동	1248/641	7억770만	3억8630만
안양동	1000/635	15억	6억5000만
월동	294/206	4억4030만	3억820만

▶다세대			
소재지	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문정동	57,1	1억8000만	1억1200만
회곡동	19,7	8400만	5880만
문양동	22,7	9500만	5320만
화정동	25,3	6500만	4530만
신정동	15,6	1억8500만	7560만
문양동	44,9	2억	1억4000만
방림동	14,8	4000만	2800만

▶오지주택			
소재지	현용면적	감정가	최저가
문정동	11,8	8000만	4480만
화정동	12,2	5500만	2484만
차량동	5,4	4억2000만	2억8400만
차량동	2,4	1억5000만	8400만

▶빌라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문정동	118,7	1억2000만	7192000만
문정동	118,7	1억2000만	7192000만
문정동	118,7	1억2000만	7192000만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서비스

포함사항 수송비, 배속선비, 육로관광, 숙박비, 조식2회, 중식3회, 석식3회, 백암관광, 울릉도 케이블카, 모노레일, 입장료 불포함-기타 개인경비

제 1일	제 2일	제 3일
광주-백암(전용차량)	포항-울릉도(전용차량)	울릉도-포항-광주(전용차량)
07:30 광주역미팅 12:30 경남양산중식 14:00 경남양산 인양저수정 동굴 16:30 경북 영덕 삼사해상공원 19:00 경북 울진 백암온천 숙박	06:30 기상 후 조식 07:00 숙소 출발 09:00 포항 여객터미널 도착 10:00 울릉도행 포항 출발 13:30 중식 14:30 육로관광 19:00 석식 및 숙박	07:00 기상 후 조식 08:00 봉래폭포, 촛대바위(모노레일탑승) 11:00 중식 11:30 케이블카 및 독도박물관 관람 15:00 울릉도 출발 18:00 포항 도착 후 석식 19:00 포항도착 23:00 광주도착 후 그리움집으로
MEALS 중 : 식당 석 : 숙소	MEALS 조 : 식당 중 : 식당 석 : 숙소	MEALS 조 : 숙소 중 : 식당 석 : 숙소

(주)나산항공관광여행사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9-2번지 제일은행 4층 T.062-224-0009 F.062-223-8077